



# 10



# EASY TRIPS



**지금 바로 떠나세요!**

파리에서 도심 속 해변을 즐기고,  
영월에서 국제사진전을 감상하며  
한여름의 더위를 잊어보자.







파리 플라주에는 해변 말고도, 카페, 스포츠 시설 등이 골고루 들어선다.

## Paris, France 프랑스 파리 선샤인, 센 그리고 샌드

### 왜 지금 가야 할까?

파리는 도시 안으로 해변을 끌어들이은 최초의 도시 중 하나다. 파리에 여름이 오면 낭만이 구불구불 흐르는 센(Seine) 강변엔 비치파라솔이 춤추며 들어서고, 여는 해변 못지않은 바캉스 분위기가 난다. 이것이 파리 플라주(Paris Plages)다. 매년 센 강변의 변신은 7월 20일경 시작해 4주 동안 계속된다. 2002년 가장 먼저 선보인 파리 플라주는 루브르부터 폰 드 쉴리(Pont de Sully)까지 이어지는 3킬로미터 구간이다. 이 구간은 파리의 역사 지구를 지나며 야외 수영장, 콘서트 스테이지, 인라인스케이트, 암벽 등반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가장 최근에 조성한 라 빌레트 선착장(Bassin de la Villette) 구간에선 로잉 보트, 카약, 페달 보트 등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키사이드(quay-side)엔 레스토랑이 즐비하다. 파리지역의 삶을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 대한항공(165만 원부터, kr.koreanair.com)과 에어프랑스(123만5,000원부터, airfrance.co.kr)가 인천국제공항에서 파리 샤를드골국제공항까지

직항편을 운항한다.

★ 파리 플라주는 2002년부터 시작된 공식 행사다. 행사 기간 내내 모든 파리 플라주 해변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개방한다.  
★ 비비드한 팬톤 컬러가 감각적인 하이 매트릭(Hi-matic)은 호텔 분위기가 나는 젊은 호텔이다. 책상이나 침대로도 사용 가능한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의 목재 가구를 이용한 공간 활용이 재미있다. 독특함으로 승부하는 하이 라이프(Hi-life) 그룹의 호텔 중 가장 최근인 2011년에 오픈했다. 69유로부터, hi-matic.net



PHOTOGRAPH: CNTO

## Qingdao, China 중국 칭다오

맥주처럼 시원한 여름을 위하여,  
간베이(干杯!)

### 왜 지금 가야 할까?

8월은 여러모로 물방울 송송 맺힌 시원한 맥주 한잔이 생각나게 하는 계절이다. 독일 뮌헨의 옥토버페스트는 아직 1달이나 더 남았고, 지금 이 시점에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중국 칭다오다. 세계 유명 맥주의 하나로 당당히 자리 잡은 칭다오 맥주 덕분에 맥주의 도시로 알려진 이곳은 황해에 접한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중국식과 유럽식 건축물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풍경을 자아낸다. 8월을 대표하는 맥주 축제는 칭다오 맥주는 물론 독일의 벡스(Beck's), 일본의 기린(Kirin)과 아사히(Asahi), 덴마크의 칼스버그(Carlberg), 멕시코의 코로나(Corona) 등 세계 유명 브루어리를 초청해 신명 나는 축제 환판을 벌인다. 옥토버페스트를 떠올리게 하지만 아무렴 어떤가.

###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 대한항공(24만 원부터, kr.koreanair.com)과 아시아나항공(24만 원부터, flyasiana.com)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칭다오국제공항으로 가는 직항편을 운항한다.  
★ 올해로 22회를 맞는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Qingdao International Beer Festival)는 칭다오 맥주광장(Tsingtao Beer Passion Square)에서 8월 11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입장료 10위안(9am~3pm), 20위안(3pm~10pm). +86 532 8889 2376.  
★ 시뷰 가든 호텔(Sea View Garden Hotel)은 유럽식 건축양식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5성급 호텔이다. 널찍한 야외 해수 수영장과 야외 바비큐를 즐길 수 있다. 1,027위안부터, seaview.cn

## Ulaanbaatar, Mongolia 몽골 울란바토르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나는 달린다

### 왜 지금 가야 할까?

끝이 보이지 않아도 달린다. 길은 광대한 초원을 지나고, 건조한 사막과 바위산을 지난다. 드문드문 게르(Ger)도 보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쉼스러운 미소로 응원한다. 매년 7월 말에서 8월 사이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라톤 코스'라 불리는 몽골리아 선라이즈 투 선셋(Mongolia Sunrise to Sunset) 경기가 열린다. 이름처럼 광활한 초원을 해 질 때부터 해 질 녘까지 달리는 경기다. 대회는 42킬로미터의 풀코스 마라톤과 100킬로미터의 울트라 마라톤으로 나뉜다. 일반 마라톤처럼 정돈된 코스가 아닌 초원을 직접 달리는 마라톤으로, 구간마다 급변하는 아름다운 풍경엔 따를 자가 없다. 참가자는 마라톤이 열리기 4일 전 울란바토르에 도착해 경기 당일 흡스골 국립공원(Hovsgol National Park)에서 레이스를 시작한다. 이 비영리 경기의 참가비는 흡스골 국립공원을 보존하는 데 쓰인다.

###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 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울란바토르국제공항까지 직항편을 운항한다. 62만8,100원부터, kr.koreanair.com  
★ 선라이즈 투 선셋 경기는 8월 1일에 열리며, 마라톤 참가는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되는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다. 전통 가옥인 게르에서 자고, 말 타기 등의 활동을 포함한 추가 패키지도 있다. 레이스 온리 패키지(Race Only Package) 1,680달러, ultramongolia.com  
★ 울란바토르의 명소로 손꼽히는 레스토랑 밀리스 카페(Millies's Cafe). 이곳은 맛있는 스테이크 샌드위치와 스무디, 치즈 버거, 홈메이드 레몬 파이를 먹으려는 사람들로 연일 북적인다. 전설적인 초콜릿 케이크를 맛보고 싶다면 재료가 떨어지기 전에 일찍 가야 한다. 메인 요리 7,000~9,500트그릭, +976 330 338.



몽골의 초원을 끝없이 달리는 기분은 마라톤 이상의 황홀한 감동을 선사한다.

PHOTOGRAPHS: C. MARINI, TAN ENG HAN FROM MS2S





4



축제 분위기에 한껏 들뜬 순수한 미소의 사람들.

**Mindanao, Philippines 필리핀 민다나오**  
축제로 만나는 필리핀의 참모습

**왜 지금 가야 할까?**  
7,107개의 섬으로 이뤄진 나라 필리핀의 가장 남부에 자리한 민다나오. 눈부시게 아름다운 해변, 서퍼를 유혹하는 멋진 파도, 조금만 벗어나도 야생의 기운이 도사리고 있는 정글이 자리한 이곳은 아직 많은 관광객이 찾지 않은 탓에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다. 민다나오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 다바오는 여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만큼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전통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여행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8월 다바오에서 열리는 카다야완 사 다보(Kadayawan sa Dabaw)는 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축제 중 하나다. 자연을 찬양하며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이 축제는 꽤 대규모로 열려 필리핀에서도 손꼽히는 축제다. 원색의 필리핀 전통 의상과 장신구로 치장한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파살라맛(Pasalamat)은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 필리핀항공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마닐라를 경유해 다바오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운항한다. 48만5,000원부터, air.philippineair.co.kr  
★ 카다야완 사 다보 축제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색색의 퍼레이드 외에도 풍성한 열대과일과 토착 농산물을 맛볼 수 있는 박람회도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 어머니와 아들이 운영하는 독특한 갤러리 호텔 폰스 스위트(Ponce Suite). 호텔 안팎으로 미술작품이 곳곳에 걸려 있어 전시회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객실은 평범한 수준이지만 루프 데크 공간이나 호텔 내 레스토랑 분위기가 재미 있다. 1,250필리핀페소부터, poncesuites.net

**Brussel, Belgium 벨기에 브뤼셀**  
누가 광장에 카펫을 깔았나?

**왜 지금 가야 할까?**  
2년에 한 번, 8월이 되면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의 중앙 광장엔 거대한 카펫이 깔린다. 더 놀라운 건 이 카펫을 모두 베고니아(Begonia)로 만들었다는 사실. 벨기에에는 세계 최대의 베고니아 생산지이자 매년 6,000만 개의 덩이뿌리를 수출하는 나라. 벨기에에선 전통적으로 축제 행렬에 꽃을 장식하거나 집의 정원이나 창을 꾸미는 데 베고니아를 사용했다. 베고니아는 다양한 색을 가진 꽃으로 이처럼 화려한 문양의 카펫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이 행사는 1971년 조경 건축가 E. 스타우테망스(E. Stautemans)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150여 명이 모여 약 75만 송이의 베고니아를 촘촘하게 바닥에 까는데, 흙이나 줄기가 없는 꽃만 사용한다. 17세기 후반의 고딕과 바로크 양식이 혼재하는 화려한 건축물이 에워싼 가운데 바닥에 깔린 색색의 카펫은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 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 브뤼셀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운항한다. 202만7,700원, kr.koreanair.com  
★ 올해의 플라워 카펫은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전시한다(19일은 오후 6시까지). 14일 밤에 열리는 전야제 행사는 빼놓지 말아야 할 하이라이트.  
★ 빈티지 호텔(Vintage Hotel)은 플라워 카펫 행사가 열리는 중앙 광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디자인 부티크 호텔이다. 객실에는 빈티지 소품을 곳곳에 배치했다. 80유로부터, vintagehotel.be



PHOTOGRAPH : VISIT BRUSSELS



▶ Enjoy Europe  
Travel by Train!



**RAIL EUROPE**  
www.raileurope.co.kr

▶ 다음 여행은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는 유럽 기차 여행을 떠나보세요.  
시간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유럽의 풍경과 문화를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일유럽에서는 여러분의 여행에 필요한 모든 열차를 저렴한 요금으로 실시간 예약이 가능합니다.  
유럽 철도 패스 및 티켓 구매는 레일유럽 홈페이지 (www.raileurope.co.kr) 또는 레일유럽 판매 여행사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유럽 열차 관련 자세한 내용은 www.railguide.co.kr 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사진제가 열리는 동강사진박물관 전경과 전시 사진 '비상국가'.

PHOTOGRAPHS : DONG GANG INTERNATIONAL PHOTO FESTIVAL, DONG GANG MUSEUM OF PHOTOGRAPHY

## Yeongwol, Gangwon-do 강원도 영월 가슴으로 즐기는 영월 여행

### 왜 지금 가야 할까?

영월의 젖줄 동강에서 초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액티비티로 기력을 소진했다면, 이제 험 험한 마음을 예술의 기운으로 채울 차례다. 2005년 7월 사진 마을로 거듭나겠다는 영월군의 다짐이 실현된 첫 번째 결과가 동강사진박물관이다. 이곳에선 국내 주요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사진을 소장하고 있으며, 클래식 카메라 130여 점도 전시한다. 박물관에서 매년 열어온 동강사진축제는 2009년부터 동강국제사진제로

명칭을 바꾸고, 주요 국제사진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초장기 사진 예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일본의 사진 전시를 두 가지 주제의 메인 전시로 선보이며, '영월의 재발견' 거리설치전, '강원도 사진가전' 등 여러 사람의 시각으로 아름다운 강원도와 우리나라를 다시 보는 기회를 선사한다.

###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 동강사진박물관은 영월시외버스터미널에서

700미터 거리에 있다.

★ 7월 20일부터 열린 동강국제사진제는 올해 11회를 맞는다. 사진 전시는 동강사진박물관을 포함한 그 주변, 학생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영월군의회 등의 야외와 실내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은 영월의 푸르른 산림에 둘러싸여 있다. 주변으로 동강사진박물관, 별마로천문대, 청령포, 김삿갓 유적지, 고씨동굴 등이 있어 둘러보기 좋다. 6인 기준 1동에 8만 원부터(7~8월 15만 원), mgds.kr



## NEW 체계적인 클렌징 비법 음파+ 진동 클렌저 뉴트라 소닉

전 세계 31개국에서 1분에 하나씩 판매!  
미국 할리웃 스타들도 반해버린 핫 아이템!  
신개념 음파+ 진동 클렌저 「뉴트라 소닉」을 만나보세요.

### [ 뉴트라 소닉의 특징 ]

- ① 미세한 음파 진동으로 모공 속까지 저자극 클렌징
- ② 7-in-1 시스템의 체계적인 피부관리  
(딥클렌징, 모공 속 청소, 피지 관리, 블랙헤드 관리, 갈끔한 각질관리, 탄력 리프팅 마사지, 음파 케어)
- ③ 안전한 방수와 뛰어난 그립감
- ④ 간편한 주파수 충전방식
- ⑤ 상황별 다양한 브러쉬



뉴트라 소닉의 「Sonic Technology」는 분당 7680회의 음파 진동방식으로 고밀도 공기방울과 물방울을 만들어 냅니다. 미세 공기방울이 만들어 내는 역동적 세정력을 이용하여 피부 모공 속 노폐물, 피지, 메이크업 잔여물, 각질까지 자극없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신개념 클렌징 제품입니다. 또한 미세 진동 방식과 워터 마사지 기능으로 건강한 피부톤과 탱탱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이젠, 매일 집에서도 전문관리를 받은 것처럼 누구나 간편하고 손쉽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NUTRASONIC



7



신안의 한적한 소금밭은 사진 찍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느리게  
소금 굽기

PHOTOGRAPHS : JUNG SOO-IM

**Sinan, Jeollanam-do 전라남도 신안**  
땀과 소금의 고귀한 짠맛

**왜 지금 가야 할까?**  
한여름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볼때지수는 하늘을 치솟는데, 이 뜨거운 햇살이 무엇보다 반가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신안에서 소금 채취를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1,004개의 섬이 모여 있어 '천사의 섬'이라 부르는 신안군. 바다에 흩뿌려 놓은 듯 사방이 온통 섬으로 이뤄진 신안의 섬은 고립된 태생 탓인지 눈부신 발전 따윈 꿈도 꾸지 않은 채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어온 소금 사업을 묵묵히 이어온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질 좋은 천일염

생산지로 각광받게 되었다. 2007년 '슬로시티(Citta Slow)'로 지정된 증도,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붉은 섬 홍도, 주민이 모두 힘을 합쳐 대동염전을 일궈낸 비금도까지, 저마다 다른 자연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염전이 자아내는 비경을 만나러, 막 채취한 새하얀 천일염을 얻으러 8월엔 신안으로 향하자.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 목포여객선터미널(061 240 6060)에서 각 섬으로 가는 페리를 운행하니 미리 스케줄을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 2010년 개통한 증도대교 덕에 증도로 가는

길이 한층 쉬워졌다. 지금도 신안의 각 섬을 연결하는 대교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 단일 염전으로 최대 규모인 증도 태평염전에는 1950년대 소금 창고를 개조한 소금 박물관이 있어 소금의 역사나 소금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관람할 수 있다. saltmuseum.org  
★ 증도에 자리한 엘도라도리조트는 외국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줄 만큼 아름다운 해변을 끼고 있는 가족 휴양지다. 야외 수영장과 해수 온천 사우나 등 편의 시설도 다양하다. 28만7,000원부터(2인실), eldoradoresort.co.kr



WEB www.tvis.co.kr | TRAVEL & VACATION | TEL 070-8193-1114

트래블 시즌  
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여행전문채널 티비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8



상그릴라 라사리아 리조트는 코타키나발루 내에서도 한적한 곳에 위치해 신혼여행객에게도 인기가 좋다.

PHOTOGRAPHS : SHANGRI-LA'S RASA RIA RESORT

### Kota Kinabalu, Malaysia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완벽한 휴가지의 조건

**왜 지금 가야 할까?**  
휴가철이면 누구나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가 여기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절반은 인도네시아 영토, 나머지 절반은 말레이시아 영토인 보르네오 섬에는 사바 주가 있는데, 사바 주의 주도이자 가장 버라이어티한 명소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 코타키나발루다. 섬 북부에 있으며, 높이 4,101미터로 동남아시아 최고봉을 자랑하는 키나발루 산의 이름을 따온 이곳은 완벽한 산과 백사장, 푸른 바다까지 갖추고 있다. 시내 중심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판타이 달릿 비치(Pantai Dalit Beach)엔

상그릴라 라사리아 리조트가 있어 더욱 멋진 휴식처로 각광받는다. 앞으로는 아담하고 한적한 해변가, 사방으로 160헥타에 달하는 울창한 열대우림 자연보호구역에 자리 잡은 리조트는 얼마 전 새 단장을 마쳤다. 멀리 장엄한 키나발루 산 위로 뜨는 해를 바라보고, 공작새가 돌아다니는 잔디밭을 산책하는 일. 꿈꾸던 완벽한 휴가가 여기 있다.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 아시아나항공(78만 원부터, flyasia.com)과 말레이시아항공(100만8,000원, malaysiaairlines.com)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코타키나발루국제공항까지 직항편을 운항한다.  
★ 완벽한 휴식을 꿈꾼다면 호텔 내 더스파 및 달릿 베이(The Spa at Dalit Bay)에서 시그너처 테라피를 받아보자. 치 밸런스(CHI Balance) 프로그램은 중국의 치유 철학을 바탕으로 심신의 조화를 일깨우는 트리트먼트를 선보인다. 1시간 30분 코스 419말레이시아링깃.  
★ 이곳에선 '오늘은 뭘 하지?'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매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할 거리를 꼭 차게 채워놓은 주간 스케줄을 참고하자. 사롱 입는 법을 알려주는 클래스부터 요리 시연, 수구까지 언제든 즐길 수 있다. shangri-la.com



# Value up!

당신의 가슴을 뛰게하는 도시 GUMI!





와이너리를 긴 한적한 시골길을 달려보는 것도 그라니트 벨트를 즐기는 법.



호주 시골의 재발견

PHOTOGRAPHS: GRANITE BELT WINE AND TOURISM © CORY ROSSITER

**Granite Belt, Australia 호주 그라니트 벨트**  
태양 빛 머금은 붉은 방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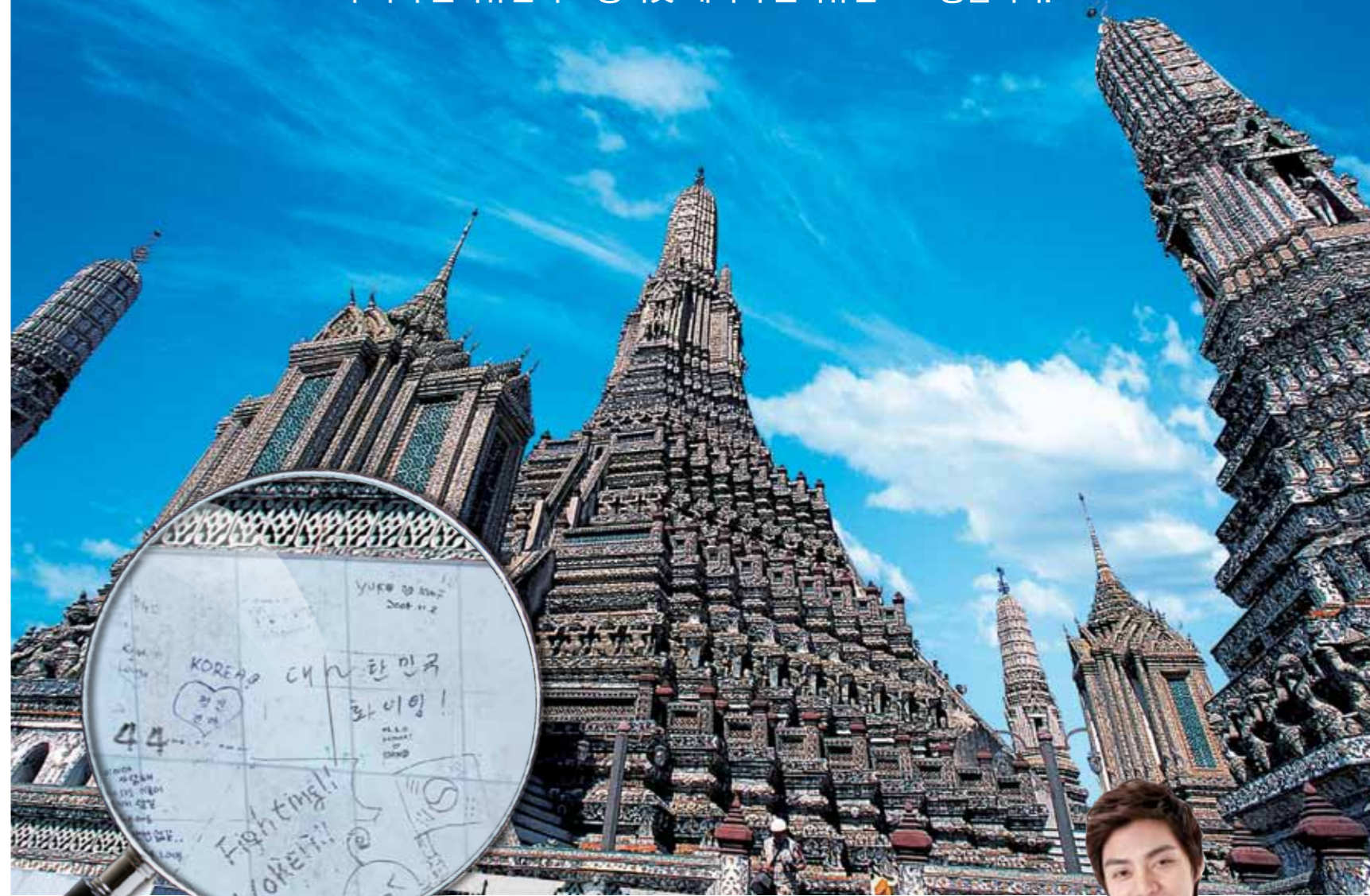
**왜 지금 가야 할까?**  
과실이 단물을 머금은 계절. 달콤 씹사래하고 톡 쏘는 와인 한잔이 간절해지는 이때, 특별한 와인 생산지를 찾아 호주로 향해보는 건 어떨까? 거대한 호주 대륙엔 수많은 와이너리가 산재하지만, 퀸즐랜드 주는 기온이 높고 와인을 생산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뉴사우스웨일스와 경계에 자리한 그라니트 벨트는 고도가 높고 기후가 서늘해 호주에서도 손꼽히는 와인 생산지다. 이곳엔 50여 개의 와이너리가 있는데, 주로 샤르도네, 카베르네 소비뇽, 시라즈, 메를로 품종을 생산한다. 각 와이너리에서 열리는 특별한 콘서트를 열거나 와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을 만드는 쿠킹 클래스를 마련하는 등 연중 독창적인 이벤트도 항시 열린다. 또 시골의 순박함과 싱그러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캠핑이나 팜스테이를 하기에 제격이다.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 대한항공(145만 원부터, kr.koreanair.com)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브리즈번국제공항으로 가는 직항편을, 콰타스항공(84만9,000원, qantas.com.au)이 경유 항공편을 운항한다. 그라니트 벨트는 브리즈번이나 골드코스트, 선샤인코스트에서 차로 2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다.

★ 퀸즐랜드 컬리지 오브 와인 투어리즘(Queensland Collage of Wine Tourism)에 방문해 호주의 와인에 관해 배워볼 수 있으며, 방카 리지(Banca Ridge) 같은 수상 경력이 있는 와이너리에서 시음을 하거나 스낵을 즐겨도 좋다. qcwt.com.au  
★ 부티크 호텔 체인 스파이서스(Spicers)에서 운영하는 스파이서스 캐노피(Spicers Canopy)는 순수한 자연 속에서 럭셔리한 글램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가이드 워킹 투어 프로그램인 스파이서스 프라이빗 워크(Spicers Private Walks)도 운영한다. 550호주달러부터, spicersgroup.com.au

우리가 사랑하는 한글이 부끄러워 집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이 소중하듯 해외의 문화유산도 소중합니다.



해외여행 필수 앱 : '글로벌 에티켓의 달인'



아이폰



안드로이드

당신의 아름다운 배려가 대한민국의 "愛티켓"입니다.

\* 여행지의 문화와 유산을 사랑하고 매너 있는 관광을 이끄는 한국관광공사의 2012년 글로벌 에티켓 캠페인 슬로건입니다.  
\* 愛티켓 : 사랑(배려)하는 마음 [愛] + 매너 [etiquette]



글로벌 관광에티켓 홍보대사 김준



# 10



JW 메리어트 서울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한여름의 파티를 열어보자.

PHOTOGRAPHS : JW MARRIOTT SEOUL

## Seoul, JW Marriot 서울 JW 메리어트 레츠 파티 피플!

### 왜 지금 가야 할까?

날씨는 무덥고, 휴가철은 코앞에 다가왔다. 직장인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학생은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다. 엄마는 가족과 떠날 여름휴가 준비가 은근히 스트레스다. 이럴 때 딱 하루 정도 시간을 내 아무 생각 없이 휴식과 재미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JW 메리어트 서울은 더위가 꺾어버린 사기를 북돋아줄 신나는 패키지를 마련했다. 가족에게 추천하는 '와! 여름이다 패키지'를 이용하면 메가박스 센트럴에서 영화를 즐기고, 델리샵에서 제공하는 아이스크림을 맛보며 객실에서 퐁굴 수 있다. 사나이들의 파티를 즐기고 싶다면, 독일 프리미엄

맥주 크롬바커와 치킨 wings, 프렌치프라이를 제공하는 비어 파티 패키지가 제격이다. 아가씨들의 밤은 더욱 특별하다. 분위기 좋은 바 루즈에서 피자과 생맥주를 즐기고 돌아오면 객실엔 베네퍼트의 화장품 키트가 기다리고 있다.

###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 ★ 서울 지하철 3-7-9호선을 타고 고속터미널역에 내려 3번 출구로 나오면 JW 메리어트 서울에 갈 수 있다. 자가용으로 이용하면 신세계백화점이나 센트럴시티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 ★ 와! 여름이다 패키지 2인 기준 24만9,000원,

비어 파티 패키지 2인 기준 25만9,000원, 3인 기준 30만9,000원(세금과 봉사료 별도).

- ★ JW 메리어트 서울의 더 카페(The Café)는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뷔페 레스토랑이다. 더 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어린이를 동반하는 성인 고객에게 어린이 뷔페를 무료로 제공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디너 뷔페에 1만 원을 추가하면 싱싱한 해산물 뷔페를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생맥주를 3,000원에 제공한다. 런치 5만5,000원(주중), 6만 원(주말), 디너 6만2,000원, 목요일 시푸드 뷔페 7만2,000원(세금과 봉사료 별도), 02 6282 6731.



130여년 전통 최고의 북유럽 스웨터를 만나다  
**100% NORWEGIAN QUALITY**